한라시론

기본소득, 지역화폐로 지급하자!

강 종 우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갑작스레 기본소득이 화두다. 재난이란 일회성 꼬리표가 붙기도 하고 대상자도 선별한다. 너스레치는 아직 완성품은 아니다. 그래도 괜찮다. 벌써 앞서 나간 지방도 생겼다. 여야 가림 없이 내남 구분 없이 죄다 한몫 거드는 모양새다. 선거판이라 한층 더 달구어진 형국이다.

아내마저 달라졌다. 나라가 공돈 주는 게 될 법하냐며 핀잔주던 때가 바로 지난해 말. 요즘은 되레 정색해서 목청을 돋운다. 코로나19가 모든 일상을 집어삼킨 지금, 그 속에서 무너져 가는 사람들을 달리 무엇으로 일으켜 세우냐며. 여하튼 기꺼웠다.

모든 시민은 빈곤하거나 불평등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국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매달 일정액을 소득으로 지급하는 것… 바로 국민기본소득. 국민에게 주는 일종의 선물(膳物)이다. 결코 혁명가의 외침이 아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그리고 실리콘밸리 혁신기업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기본소득은 그 자체로 '크고, 위험하고, 담대한' 도전이다. 결코 녹록지 않은 일… 엄두가 나지 않을 지도 모른다. 거리낌 없이 공짜 점심을 먹는 이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 한 더더욱 그렇다. 자신의 것을 쉽게 내놓으려 할리 만무하다. 소득 불평등을 바꿔보려는 시도 또한 구두선에 불과하다.

오직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 강조하는 '합리적 바보(?)'의 눈에는 가당치 않은 짓이다. 하지만 야수적 시장경제를 한 걸음이라도 넘어서 보려는 사람들에겐 너무나 신선한 자극이다. 그래서 나는 지지한다. '성장 없는 경제, 일자리 없는 사회'를 이겨낼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이것, 기본소득이라고.

그렇다고 소득만 늘려주면 그만일까? 지갑 속에 돈을 넣어줬는데도 빚 갚는데 써버리거나 혹은 꽁꽁 묶어둔다면 소용없는 노릇. 실제로 지금도 그렇지 않은가.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가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오늘, 건강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볼 수는 있을까. 게다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지역 소비자들이 쓰는 돈 상당 부분이 지역에 남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가기 일쑤다. 돈을 푼다고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매한가지.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을까?

그 유력한 대안이 지역화폐(Local Currency)다. 몇 개월 안에 일정액을 써야만 하는 색다른 화폐. 마치 교통약자 바우처카드처럼. 지역화폐란 오직 해당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이다. 결국 외부 유출을 막는 보호막인 셈. 더욱이 소비를 부추겨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 세이의 법칙(Say's Law)이 작동하는 것. 따라서 지역화폐야말로 지역 스스로의 힘으로 지역을 재생시키는 탁월한 윤활유다.

기본소득에 지역화폐라는 엔진을 달자. 매월 조금씩이라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

언젠가 스스로 발행하는 돈, 지역통화(LETS)가 제주에도 발붙일 날을 기다려 본다. 다자간(多者間) 품앗이, 현대판 수눌음 말이다.

사설

새로운 변수로 해외 입도객이 위협한다

유럽과 북미는 코로나바이러스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현재 유럽의 경우 확진자로 판명된 사람이 16만9500명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는 3만25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지역에서 발생한 확진자가 모두 20만2000명입니다. 전세계 확진자(34만명)의 60%에 달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도 해외 입국자 중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스페인을 다녀왔던 제주 입도객이 코로나바이러스에 잇따라 감염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24일 오후 3시15분쯤 스페인을 방문했던 20대 여성이 다섯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의 지인도 이날 오후 늦게 여섯번째 확진자로 등록됐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스페인에 체류한 뒤 18일 국내에 입국했습니다. 스페인은 유럽에서도 이탈리아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장 두드러진 국가입니다.

그러잖아도 해외에서 들어오는 감염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3일 국내 신규 확진자 64명 중 14명(22%)이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입니다. 신규 확진자 중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도 이날 처음으로 20%를 넘어섰습니다. 입국 후 국내에 머물다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더욱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비록 제주가 지역사회 감염사례는 없지만 결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잊을만 하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4명 모두 완치되자마자 다시 터졌습니다. 그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국내 위험지역을 찾았던 입도객들입니다. 앞으로는 해외 입국자들이 새로운 변수로 대두됐습니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유럽 등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농촌 농번기 일손확보 제대로 해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농번기를 앞둔 제주농촌 일손확보가 비상입니다. 양파·마늘 수확을 앞둔 시점에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인력 이동 제한에 묶여 초래한 결과입니다.

농민들은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감귤 및 채소류 가격 폭락으로 가중되는 경영난에 허덕입니다. 제주시가 올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을 받은 결과 2432건, 921억원으로 전년 같은기간(480억원)에 비해 무려 92%나 급증할 정도로 위기입니다.

농민들은 이런 처지에 영농인력마저 못구해 애태운다면 이중삼중의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제주농촌은 영농인력의 상당수를 외국인 근로자로 채워온 마당에 4월 양파, 5월 마늘 수확작업의 경우 수많은 인력을 한꺼번에 필요로 해 코로나19로 인한 인력수급 차질은 예상을 넘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와 농협은 최근 농번기 인력난의 심각성을 예상, '영농인력 수급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도내 영농지원 구직자를 대상으로 영농작업반을 구성해 4~6월 양파와 마늘, 하반기엔 당근과 월동무 양배추 작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매년 영농인력 지원활동은 농협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현장에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해 왔습니다. 휴일중심의 한정된 시간으로 이뤄지는데다 작업성과도 기대 못하는 자원봉사 성격입니다.

영농인력은 연중 공급 가능하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한 유상인력 공급체계 구축이 맞습니다. 핵심은 농사일을 기피하는 구직인력들을 유인하고, 인력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해 상시 공급체계를 갖추는 일입니다.

도와 농협이 현 농업의 위기와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당장 상시 유상인력공급체계에 나서야 합니다. 필요시엔 자회사나 법인성격의 영농인력 수급조직 신설도 강구해야 합니다. 임시방편적인 영농인력 공급방안은 이제 지양할 때입니다.

편집국 25시

안전성냥(Safety match)

김 현 석
행정사회부 기자
ik012@ihalla.com

성냥개비 수십 개가 도미노처럼 한 줄로 길게 늘어서 있다. 제일 앞에 있는 성냥개비에 불이 붙기 시작하더니 늘어선 성냥개비들을 따라 불이 번진다. 이때 한 성냥개비가 줄을 이탈해 불이 번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본다. 성냥개비 틈이 벌어지자 뒤에 있는 성냥개비들로 불이 더 번지지 않고, 이미 불타고 있는 성냥개비들의 불이 조금씩 약해졌다.

이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중요성을 표현한 'Safety match(안전성냥)'이라는 12초짜리 동영상으로, 스페인 비주얼 아티스트 후안델컨(Juan Delcan)이 제작했다. 이 동영상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100만번 이상 조회되고 공유되며 화제가 되고 있다. 델컨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사태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전혀 모르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며 이 위기의 심각성을 이해시키기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에 앞서, 제주도도 11일부터 자체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을 전개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써 왔다.

지난 4일 제주지역 네 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20일 동안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24일 5·6번째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 실천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이어지자 평소 아무렇지 않게 반복되는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떠들던 시간을, 운동동호회원들은 땀 흘리던 체육관을, 직장인들은 퇴근 후 모임·회식을 하면서 하루의 피로를 풀던 시간을 그리워하고 있다.

일상을 되돌리고 싶다면, 나 자신이 '안전성냥'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에 동참해야 할 때이다.

뉴스-in

불법 옥외광고물 "꼼짝마"

기동순찰반·클린사인단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위해 '불법광고물 기동순찰반'과 '클린사인단'을 운영하기로 해 눈길.

기동순찰반은 읍면동사무소와 주민·단체 등으로, 클린사업단은 행정시·전문가·소방·자치경찰·옥외광고협회 등으로 구성해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홍보 및 단속을 전개할 예정.

고우석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불법광고물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로 경관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와 인식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 고대로기자

농수축산물 소비촉진 앞장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부진으로 피해가 심각한 1차산업 생산품의 소비촉진에 공직자들이 앞장.

서귀포시는 이달부터 공직자들이 제주산 돼지고기 구매를 시작으로 일본 수출길이 막히고 내수도 급감한 백합·심비디움 등 화훼류와 선동갈치 등 현재까지 4400만원어치를 구매.

시 관계자는 "내부통신망을 통해 농수축산물 구매 희망자를 신청받고 있다"며 "25일까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와 이달 말까지 제주산 닭고기와 유제품 구매행사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 문미숙기자

코로나19로 신화월드 고전

○…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제주관광산업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도내 최대 복합리조트인 제주신화월드도 고전.

신화월드는 25일 코로나19 사태로 카지노 매출액이 한달 새 70%가량 급락했지만 지원에는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토로.

관계자는 "업장 규모가 큰 만큼 손실도 큰 데도 소상공인 위주의 도정 지원책에서 제외되고, 관광진흥기금 납부 의무까지 짐을 지고 있다"며 "기금 납부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울상. 백금탁기자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제주고씨 영순(향년 76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를 위로하고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감사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이오나 경황이 없어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3월 26일

아 들 오승훈 며느리 현순녀
동훈 고수연
딸 오현숙 사 위 강석진
향선 양관식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신천강씨 기출(향년 91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3월 26일

아 들 정승표 며느리 이복숙
정경애
승영 우현덕
사 위 임시홍
딸 정복희 김석용
숙희 고광식

제주지방법원 판결공시

-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8고정425
  업무상과실치상
- 피 고 인 현경욱

위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3.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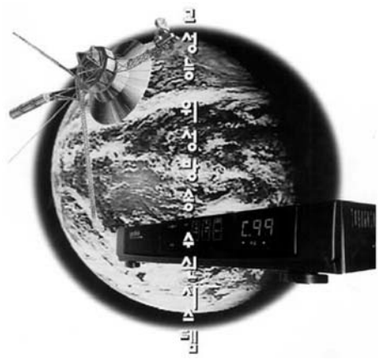
판사 박 준 석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건계분판매
친환경 및
HACCP인증 농장
•발효기(콤포스트)로 열처리 발효시켜 완전 건조된 친환경 계분을 판매합니다.
•펠렛으로도 가능합니다.
- 제주 전지역 배송가능 -
제주초록영농조합법인
문의 : 010-3693-2000, 010-2696-9876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 표 : 현 문 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주)전기자동차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방수 단열
우 레 탄
우 레 아
석 주 개 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